

# “日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는 징용보복조치…WTO 위반”

日전문가·언론 우려 목소리

후쿠나가 와세다대 교수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 가능성”

아사히 “총리 관저서 밀어붙여”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후쿠나가 유키(福永有夏) 와세다(早稲田)대 교수는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WTO협정의 기본 원칙은 한 가맹국에게 유리한 조치가 다른 모든 가맹국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최혜국대우(MFN)”라며 “다른 가맹국에게는 수출이 간략한 절차로 끝나는데 한국에게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MFN 위반이 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맹국을 대상으로 관세에 의하지 않은 수출입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 제11조를 들며 “이번 조치가 바로 11조의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신중해도 수출허가가 나지 않는 사태가 되면 수출이 실제로 제한되는 것이 되니 위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쿠나가 교수는 “일본 정부는 안전보장상 필요가 있다면 예외조치가 인정되는 21조를 염두에 두고 조치가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21조가 안보를 명목으로 한 조치를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시점에서는 WTO 협정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회색(에매한) 상황이다’”며 “하지만 이런 조치를 한 것은 미국이 그러는 것처럼 타국에 정책변경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조치를 사용한 것이다. 미국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사히신문도 이날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우려가 전문가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WTO 협정이 금지하고 있는 수량 규제에 연결된 다면 협정위반이 될 우려가 있다”는 후쿠나가 교수의 발언을 소개했다.

아사히는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 내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신중론이 강했다고 전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문제의 장기화를 우려하며 “만약 (한국 정부로부터) 보복의 응수가 있다면 일본도 상당한 아픔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주요 일간지들도 사설을 통해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정부 내에서 신중론이 강한 가운데 총리 관저,

즉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밀어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이번 조치가 일본 기업과 국제 제조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견해가 정부 내에서 있었다며 “최후에는 총리 관저와 (총리) 주변 의원의 강한 의향이 움직였다”는 ‘관계자’의 말을 소개하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최근 자 조간에 ‘보복을 즉시 철회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정치 목적에 무역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자유 무역의 원칙을 왜곡하는 조치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최근 미국과 중국이 치켜들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에 일본도 참여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배경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대항 조치는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이번 조치가) 무역과 관련한 국제적인 논의에서 일본의 신용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한일 양쪽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텐데도 이런 모순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국과 거래하는 일본 기업에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장래에는 한국 기업이 공급처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며 “정치의 대립에 경제 교류를 끄집어내는 것이 한일 관계에 줄 상처는 계산하기 힘들 정도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도서관이 된 그랑팔레’…샤넬 오트 쿠튀르 패션쇼 2일(현지시간) 대형 도서관으로 변한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2019/2020 F/W 여성복 오트 쿠튀르 컬렉션 패션쇼에서 모델들이 명품 브랜드 샤넬의 의상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아마존 열대우림, 6월에만 서울시 면적 사라져

2016년 이후 최대 훼손

국제사회 우려 불거 파국 확산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아마존 열대우림 훼손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시간)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에 따르면 지난달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면적은 769㎢에 달해 6월을 기준으로 2016년(951㎢) 이후 3년 만에 역대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이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울시 면적(605.2㎢)보다도 넓은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연발화에 의한 산불이나 상업적 이용을 위한 벌목을 제외한 것이어서 실제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면적은 이보다 훨씬 넓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적했다.

이런 요소들까지 합치면 지난달 사라진 면적은 1천700㎢로 2016년 6월의 6천 800㎢에 이어 역시 역대 두 번째로 넓다.

환경 전문가들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환경보호보다는 개발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를 가속하는 주요 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엔인권이사회는 최근 보고서 통해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의 아마존 열대우림 개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보우소나루 정부가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서 광산 개발을 확대하고 원주민 보호지역을 축소하는 가 하면 환경보호기관의 역할을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우소나루 정부

의 정책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반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 등 남미 8개국에 걸쳐 있으며 전체 넓이는 750만㎢에 달한다.

전체 아마존 열대우림 가운데 브라질 북부와 북동부 9개 주(州)에 속한 지역을 ‘아마조니아 레가우(Amazonia Legal)’라고 부른다.

아마존 열대우림에는 지구 생물 종의 3분의 1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루 안데스 지역에서 시작해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을 가로질러 브라질 대서양 연안까지 이어지는 하천의 길이는 총 6천900㎢다. /연합뉴스

## 달라이 라마 “女지도자 매력적이어야” 발언 사과

영국 BBC방송 보도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여성 승계자가 나온다면 더 매력적이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사죄했다.

3일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 측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상처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문화에서는 재미있을 수 있는 발언이 다른 문화에서는 유머가 아닌 경우가 있다. 그는 후회하고 있다”며 “달라이 라마는 평생 여성의 사물화를 반대하고 양성평등을 지지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BBC방송은 지난달 27일 달라이 라마의 84번째 생일을 앞두고 티베트 북귀의 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난민 문제 등에 대해 단독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인터뷰 내용 중 ‘여성 승계자’에 관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 인터뷰 진행자가 “2015년에 ‘여성 달라이 라마가 나온다면 그녀는 매력적이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묻자 달라이 라마는 “그렇게 말했었다”며 같은 말을 되풀이 하면서 웃었다. 달라이 라마는 인터뷰에서 아름다움이 두뇌만큼 중요하다는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BBC방송은 당시 보도했다.

이 라마가 나온다면 그녀는 매력적이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묻자 달라이 라마는 “그렇게 말했었다”며 같은 말을 되풀이 하면서 웃었다. 달라이 라마는 인터뷰에서 아름다움이 두뇌만큼 중요하다는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BBC방송은 당시 보도했다.

문화·환생을 믿는 티베트 불교는 달라이 라마의 사후 그가 환생한 소년을 찾아 후계자로 삼는 전통을 수백 년간 이어왔다.

현재 달라이 라마는 두 살이던 1937년 달라이 라마의 환생을 검증하는 여러 시험을 통과한 끝에 14대로 인정받았고 1940년 공식 즉위했다.

한편, 달라이 라마 측은 앞서 보도된 BBC방송 인터뷰 내용 중 “유럽연합(EU) 난민들이 궁극적으로는 귀국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달라이 라마 측은 성명서에서 “그는 조국을 떠난 많은 사람이 돌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거나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U 차기 집행위원장에

폰데라이엔 독일 국방장관

EU 차기 집행위원장 후보로 선출된 우르줄라 폰데라이엔 독일 국방장관이 2017년 7월 13일(현지시간) 프랑스-독일 합동 각료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파리 엘리제궁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 “트럼프 노벨상 타는 길 가”…백악관 고문 ‘판문점 회동’ 비판 반박

콘웨이, 폭스뉴스 인터뷰

“평화 가져오기 위해 노력 의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과 관련, 켈리언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타는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 민주당 등 일각에서 ‘실체 없는 정치적 쇼’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따른 반박이자 북한 비핵화를 향한 노력을 강조하는 의미로 보인다.

콘웨이 선임고문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

뷰에서 이번 회동을 놓고 ‘미국 외교 정책과 외교 역사상 최악의 며칠 중 하나’라고 비판한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진행자가 거론하자 “그렇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노벨평화상을 타는 길에 있다”고 말했다.

콘웨이 고문은 “그건 그(트럼프)가 적어도 지도자들과 만나 다른 나라들과 이야기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며, 제재가 계속되는 동안 정말로 핵 능력을 줄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분명히 김 위원장에게 직접 말했다”며 제재는 계속될 것이지만, 무엇이 주권을 위한 경제 발전과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지 살펴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나눈 대화와 관련, “바로 거기에서 그(트럼프)는 매우 분명하고 매우 투명하고 언론에 매우 공개적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콘웨이 고문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그(대화)이 잘되지 않으면, 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나쁜 합’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Vitamin House**  
귀입문의 1588-8529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